

한국문학탐방3

발표자료집

2011

- 지역 : 전남 지역의 담양, 완도(보길도), 강진, 해남, 보성,
순천, 경남 지역의 하동
- 기간 : 3월 30일(수) - 4월 2일(토)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목 차>

-
1. 탐방단 구성 --- 3p.
 2. 일 정 표 --- 4p.
 3. 발표장소/배정표 --- 5,6p.
 4. 전남남부 지도 --- 6p.
 5. <1조> 송 순 --- 7~10p.
 6. <2조> 정 철 --- 11~14p.
 7. <3조> 윤선도 --- 15~20p.
 8. <4조> 정약용 --- 21~24p.
 9. <5조> 김영랑 --- 25~27p.
 10. <6조> 조정래 --- 28~31p.
 11. <7조> 김승옥 --- 32~34p.
 12. <8조> 김동리 --- 35~37p.
 13. <9조> 박경리 --- 38~40p.
-

1.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단장 : 학과장

조별 지도교수

1~3조 : 이기인 교수, 4~6조 : 김명준 교수

7~9조 : 신서인 교수

재정 및 진행 기록 담당 : 민선희 조교

전체 진행 사회 : 학회장(여환정)

숙식 관리(방배치) : 부학회장(홍에스더)

조	탐방대상	조장	재학생	1학년
1	송 순	최선희	송혜진, 진초록,	유혜승, 전유정, 강덕원
2	정 철	김준환	정다운, 장한별	최소라, 심문정, 이근재, 양희수
3	윤선도	이재혁	한소영, 채상윤	홍성대, 이하늘, 김민정, 고은하, 김영준
4	정약용	노한나	김지예, 박종태	박선아, 김승만, 윤지영, 김주형
5	김영랑	곽호윤	백현정, 노혜주	길창인, 이소영, 이은화, 최성윤
6	조정래	윤옥철	백민혜, 김주경, 윤준석	최유리, 김현정, 맹승범, 김홍인, 장성은
7	김승옥	김성근	최그림, 심보선, 유현서	윤수지, 김지연, 김수연, 박민철, 이승제
8	김동리	박정성	석민수, 안준호, 리쉬에평	허윤석, 김재원, 김아영, 노지영
9	박경리	홍현기	권서희, 이진희, 홍초록	민주은, 백영현, 김주성, 김도희

<배차> (총 74 명)

1호차 : 1-5조, 이기인 교수, 김명준 교수, 민선희 조교, 학회장 - 39 명

2호차 : 6-9조, 신서인 교수, 유명희 교수, 박승일, 부학회장 - 38 명

<준비물>

공동준비물 : 지도, 비상약 등

개인준비물 : 의복, 필기도구, 카메라, 자료집, 학생증, 우산, 세면도구 등

<주의 사항>

유적 관람 시간 : 발표와 자유 관람을 반씩

자유 관람할 때 개인행동도 조별로 실시할 것

2. 일정표

	3월 30일(수)	3월 31일(목)	4월 1일(금)	4월 2일(토)
08	00 연암관 1층 앞 주차장 집합 30 학교 출발	07:30 조식: 푸른모텔 08:10 푸른모텔 -> 땅끝 선착장 30 땅끝 -> 산양 출발	08:00 조식: 강진식당	00 조식: 새조계산장
09		10 산양 선착장 도착 20 산양 -> 세연정 출발 40 세연정 도착 <어부사시사> 시비	00 숙소 -> 김영랑 생가 출발 10 김영랑 생가 도착 <모람이 피기까지는>시비 20 김영랑 생가 -> 벌교 출발	20 새조계산장 -> 화개장터 출발
10		10 세연정 -> 낙서재 출발 20 낙서재 도착 50 낙서재 -> 동천석실 출발	20 벌교 도착 <태백산맥>의 무대 부용교, 홍교 김범우의 집 30 벌교 -> 조정래 문학관출발 40 조정래 문학관 도착	20 화개장터 도착 <역마>의 배경 50 화개장터 ->최참판댁 출발
11		00 동천석실 도착 50 산양 선착장으로 출발	20 조정래 문학관 -> 순천대대포 출발	00 최참판댁 도착 <토지>의 무대 50 최참판댁 -> 평사리공원 출발
12		20 산양 선착장 도착 30 산양 -> 땅끝 출발 (소요시간 : 40분)	00 순천 대대포 도착 중식: 순천만 가든 () 45 순천만 생태공원 관람 <무진기행>의 무대	00 평사리공원 도착 40 평사리공원 -> 기룡가든 출발 50 기룡가든 도착 중식: 기룡가든
13	20 담양IC 도착 30 중식 : 송죽정	10 땅끝 선착장 도착 20 중식 : 전라도 한정식		30 기룡가든 -> 학교 출발
14	10 송죽정 -> 면양정 출발 30 면양정 도착 <면양정가> 시비 50 면양정 -> 송강정 출발	00 땅끝 -> 녹우당 출발 40 녹우당(운선도) 도착 <오우가>	45 순천만 -> 선암사 출발	
15	00 송강정 도착 <사미인곡> 시비 20 송강정 -> 식영정 출발 35 식영정 도착 <성산별곡> 시비 55 식영정 -> 소쇄원 출발	45 녹우당 -> 다산초당 출발	45 선암사 숙소 도착 숙소: 새조계산장 (짐 풀고) (061-751-9200)	
16	00 소쇄원 도착 (조별 자유 관람) 30 소쇄원 -> 땅끝 출발	00 다산초당 도착 <애절양> <전론>	10 숙소 -> 선암사 (도보로 이동) 승선교, 중정래 생가터, 해우소	
17		35 다산초당 -> 강진 출발 55 강진숙소 도착 숙소: 탐모텔	40 선암사 -> 숙소 출발	
18		30 석식: 강진식당	30 석식(만찬): 새조계산장	00 춘천 도착 학교 해산
19	10 토말(땅끝) 도착 숙소: 푸른모텔 석식: 푸른 모텔 땅끝기념비(조별자유관람)			

3. 2011년 한국문학탐방 발표 장소 및 배정표(안)

참고 : [임형의남도문화기행 <http://namdou.com/> 순천대남도문화기행: <http://www.gonamdo.or.kr/>]

1. 송순(가사) 가사문학관 <http://www.damyang.go.kr/new/gasa/index.htm>

- ① 면앙정 : I. 송순의 생애(유혜승) II. 면앙정가단(강덕원) III. 송순의 작품세계(전유정)
IV. <면앙정가>의 이해(진초록)

2. 정철(시조 및 가사) 가사문학관 <http://www.damyang.go.kr/new/gasa/index.htm>

- ① 송강정 : I. 정철과 창평과의 관계(정다운) II. <성산별곡>의 이해(심문정)
② 식영정 : III. <사미인곡>의 이해(최소라) IV. 정철 관련유적(이근재)

3. 윤선도(시조, 한시) <http://myhome.naver.com/dangmea/> <http://www.bogildo.com/> <http://www.bogilisland.co.kr/>

- ① 세연정 시비(주차장) : I. 윤선도의 생애(이재혁), II. 윤선도의 작품세계(고은하), III. <어부사시사>의 이해(김민경)
② 세연정 : IV. 윤선도와 세연정의 유흥(이하늘, 홍성대),
③ 녹우당 : V. <오우가>의 이해(김영준),

4. 정약용(한시, 문학론, 한문소설, 실학사상)

<http://www.tasan.or.kr/> http://www.nyj.go.kr/dasan/dasan_index.html

- ① 다산초당 : I. <애절양>의 이해(김승만) II. 정약용의 자주적 문학관(김주형) III. 토지제도 <전론>의 이해(윤지영) IV. 정약용 저서(박선아)

5. 김영랑(현대시)

- ① 김영랑 생가 : I. 김영랑의 생애(최성윤) II. 김영랑의 문학관(이은화,길창인) III.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이해(이소영)

6. 조정래(현대소설) <http://www.jojungrae.com/> <http://www.seonamsa.co.kr/>

- ① 벌교역, 철다리, 부용교(소화다리), 홍교(황갯다리), 김범우의 집, 현부자집, 진트재 : I. 조정래의 생애(최유리) II. 조정래의 소설세계(아리랑-김현정)(한강-맹승범) III. <태백산맥>의 이해(김홍인,장성은)
② 선암사(생가 터) : IV. 조정래 관련유적(윤옥철)[태어난 곳 : 선암사, 초년시절 : 벌교, 서울생활]

7. 김승옥(현대소설)

- ① 순천시 금곡동 154번지, 황혼녘의 순천만 대대포구 갈대밭과 포구, 뚝방길, 다리 : I. 김승옥의 생애(윤수지) II. <무진기행>의 이해(김지연,박민철) III. 순천 대대포와 <무진기행>의 배경(김수연,이승제)

8. 김동리(역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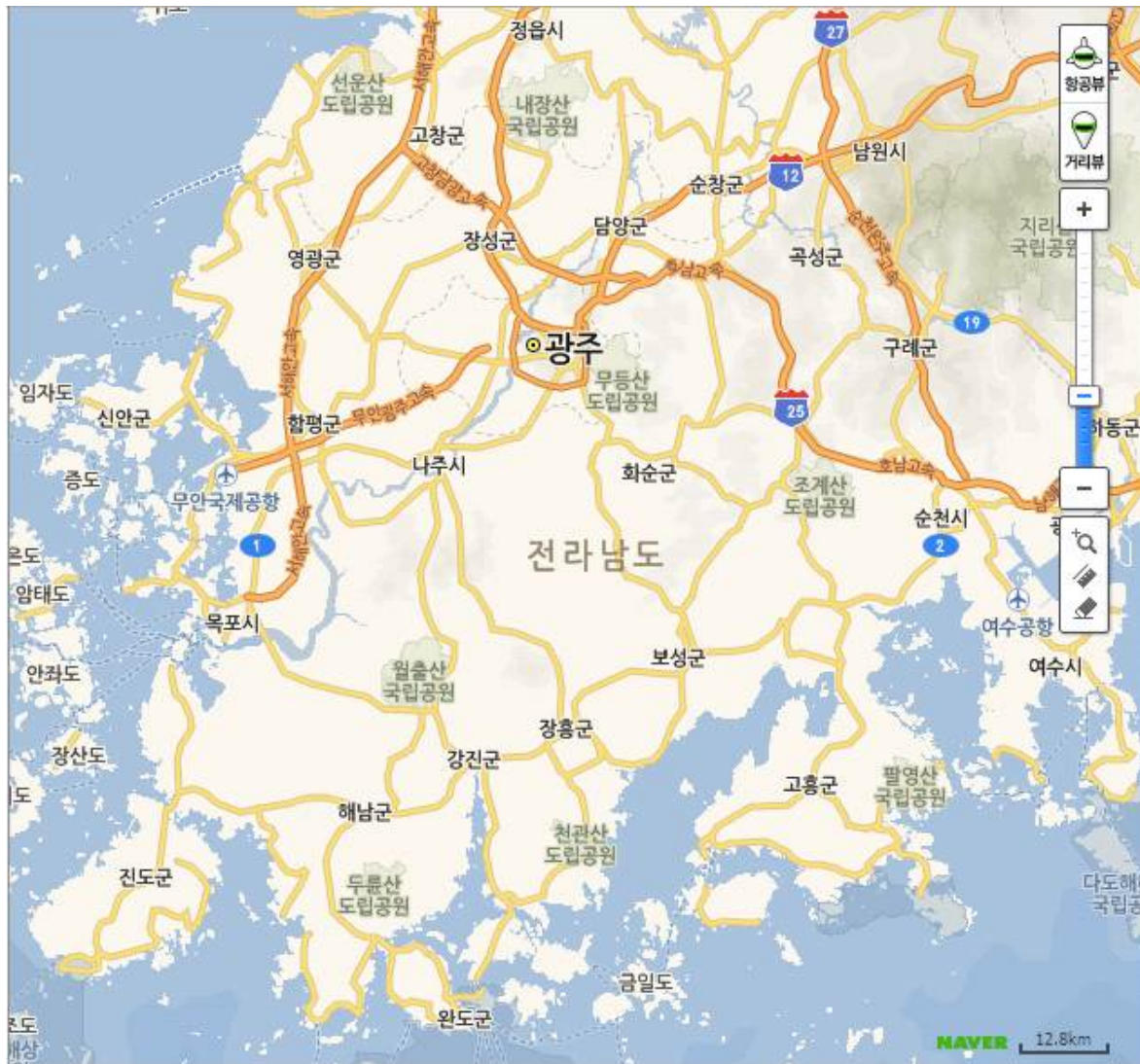
I. 김동리의 생애(허윤석) II. 김동리의 작품세계(김재원) III. <역마>의 이해(안준호, 노지영, 김아영)

9. 박경리(토지)

1) 하동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 I. 박경리의 생애(민주은) II. <토지>의 이해(김주성, 김도희, 백영현)

4. 지도

1) 전라남도



송순의 생애

20111127

유혜승



▲면양정

송순(宋純, 1493~1582)의 자는 수초(遂初·守初)와성지(誠之), 호는 기촌(企村)과 면양정으로 아버지 태(泰)와 어머니 순창조씨(淳昌趙氏) 사이에서 전라도남도 담양에서 태어났다. 명문 양반가 출신으로 21세에 박상에게서 배웠으며, 26세 때는 송세림에게서 배웠다. 1519년에는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가 되었다. 이후 사간원 정언, 홍문관 직제학, 사간원 대사간을 거쳐 전주부윤, 나주목사 등을 지냈고 77세에 한성부윤, 의정부 우참찬 겸 춘추관사(春秋館事)를 끝으로 벼슬을 사양하고 향리로 물러났다.

송순이 살았던 때는 4대사화(四大士禍)가 일어나는 등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그는 50여 년의 벼슬살이 동안 단 한번, 1년 정도의 귀양살이만 할 정도로 관운이 좋았다. 이는 그가 인품이 뛰어났고 성격이 너그러운 동시에 의리가 있었으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고루 사귀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송순은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성수침에게서는 "온 세상의 선비가 모두 송순의 문하로 모여들었다", 이황에게서는 "하늘이 낸 완인(完人)"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당대의 대표적 인사들과 친교를 유지했다. 그의 교우는 신광한·성수침·이황·박우·정만중·송세형 등이 있고 문하인사에는 김인후·기대승·고경명·정철·임제 등이 있다.

송순은 호남 출신이지만 영남 사림의 학통을 이어받은 박상·박우 형제의 영향을 받았고, 선산부사로 재직할 때에는 그곳의 사람들과 교유하는 등, 학문적인 면은 사림파에 가까웠다고 전해진다. 또한 음률에 밝아 가야금을 잘 탔고 풍류를 아는 호기로운 재상으로 알려져 있다. 1533년에 김안로가 권세를 잡자 귀향하여 면양정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는데, 이때부터 임제·김인후·고경명·임억령 등과 교유하며 면양정가단을 형성했다.

작품으로 가사 〈면양정가〉를 비롯하여 시조 22수와 한시 520여 수가 남아 있는데, 가사 〈면양정가〉·〈면양정단가〉와 같은 시조작품은 면양정 주변의 빼어난 경치와 그곳에서 유유자적하며 내면의 심정을 수양하는 내용을 노래한 것으로, 강호가도의 선구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그의 시조 〈오륜가〉 5수는 주세붕의 〈오륜가〉와 함께 후에 정철의 훈민가류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 담양 구산사(龜山祠)에 배향되었으며, 문집으로 〈면양집〉이 있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면앙정가단

20111101

강덕원

가단이란 조선 후기에 등장한 가객 동호인들의 모임이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시조를 논하면서 영남가단·호남가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고, 대개 가단이라 할 때는 조선 후기 중인 서리층을 중심으로 한 가객집단을 뜻한다.

조선 후기에는 많은 중인층들이 문학 활동을 전개했는데, 가단은 중인 출신으로 한시(漢詩)를 쓰는 사람들이 만든 시사(詩社)에 대응된다. 이들은 도시의 발달로 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시의 유흥과 풍류를 주도했다. 본격적인 가단활동은 18세기 중반에 이세춘가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송순은 1533년 김안로가 권세를 잡자 고향인 담양에 귀향하여 1552년에는 면앙정을 짓고 그곳에서 시를 지으며 지냈다. 그는 면앙정이 많은 학자·가객·시인들의 창작 산실이 되도록 이끌고 그곳에서 이황을 비롯한 강호제현(江湖諸賢)들과 학문을 논하며 후학을 길러냈다. 이때 이들의 모임을 그들이 모여 창작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면앙정의 이름을 따서 ‘면앙정가단’이라고 한다.

‘면앙정가단’은 1972년 8월 7일 전라남도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1533년(중종 28) 송순이 건립하였다. 이황(李滉:1501~1570)을 비롯하여 강호제현들과 학문을 논하며 후학을 길러내던 곳이며, 이 곳에서 송순은 많은 학자·가객·시인들의 창작 산실을 만들었다. 정자 안에는 이황·김인후·임제·임억령 등의 시편들이 판각되어 걸려 있다. 다시말해 이곳은 송순의 시문활동의 근거지이며, 당대 시인들의 교류로 호남제일의 가단을 이루었던 곳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송순의 작품세계

20111137

전유정

송순의 작품들을 보면 크게 <면앙정가>, <강호가도> 등의 작품이 있다. 그는 이황과 많은 대립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의 문학작품은 이황의 작품과도 흡사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송순의 문학은 ‘자연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그는 심성을 기르는 즐거움은 자연을 매개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호를 동경했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은 자연히 강호문학이 활발히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대표적 작품인 면앙정가 중 일부를 보자.



◀가을의 면앙정 풍경

흰구름과 뿌연 안개와 놀,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로구나.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며들며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기도 하며, 내리기도 하며 넓고 먼 하늘에 떠나기도 하고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기도 하여,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석양에 지는 해와 섞이어 보습비마저 뿌리는구나.

뚜껑 없는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들에서 지저귀는 피꼬리는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구나.

나무 사이가 가득하여(우거져) 녹음이 엉긴 때에 긴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퍼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된서리 걷힌 후에 산빛이 수놓은 비단 물결 같구나.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퍼져 있는고? 고기잡이 하며 부는 피리도 흥을 이기지 못하여 달을 따라 부는 것인가?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과 산이 묻혀 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자연을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 같은 눈에 덮힌 아름다운 대장면이 눈 아래 펼쳐 있구나.

하늘과 땅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이 작품에서는 면앙정의 모습과 주변의 형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경치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으며 그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작자의 흥취가 나타나있다. 자연의 경치에 취해 있으면서도 사대부의 도리를 지키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사상과 유교적충의 이념을 결합한 것을 강호가도라 한다. 사계절의 풍경과 자연에 벗삼아 흥취한 모습이 경이롭다.

출처 - <http://blog.naver.com/hymospace?Redirect=Log&logNo=60026397867>

<면앙정가>의 이해

20101139

진수연



<면앙정>

면앙정가는 1524년(중종19)의 작품으로, 지은이가 41세로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담양 제월봉 아래에 면앙정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경치와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노래한 것이다. 면앙정이 있는 제월봉이 무등산 줄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 무등곡(無等曲)이라고도 한다. 필사본<잡가 雜歌>에 국문가사가 전하고 지은이의 문집 <면앙집>에 한역가사가 실려 있다. 2음보를 1구로 보면 모두 145구이며, 서사(序詞)·본사(本詞)·결사(結詞)의 3단락으로 되어 있다.

각 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사는 무등산 자락이 이어 내려온 곳에 면앙정을 지은 것과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유유히 흐르는 흰 구름, 안개 노을의 한가로운 모습을 노래했다. 본사는 면앙정에서의 사계절을 노래했다. 봄에는 한가롭게 남여(藍輿)를 타고 면앙정에 오르내리며 피꼬리의 교태로 느끼는 춘흥을 노래했으며, 무더운 여름에는 정자에서 낮잠을 자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는 마음을 노래했다. 이어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눈 덮인 자연을 서술하고, 이 모든 경치를 무한경(無限景)이라 했다. 마지막, 결사에서는 세속의名利(名利)를 떠나 있는 몸이지만 자연의 뛰어난 경치를 구경하며 안빈낙도하면서 벗들과 풍류롭게 지내는 것을 서술하고 지금이 회황(義皇)시절이요 자신은 신선이며, 이태백의 풍류보다도 자신의 풍류가 낫다고 했다.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임금의 은혜라고 했다.

면앙정가는 전원에 물러나 자연의 한가로움을 즐기며 심성을 수양하는 이른바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전형적인 노래이다.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반복·점층·대구법 등을 적절히 썼고 경치를 실감나게 묘사한 뛰어난 가사로 평가된다. 또 정극인의 <상춘곡>과 더불어 호남 가사문학의 원류가 되며, 그 내용·형식·묘사 등에서 정철의 <성산별곡>·<관동별곡>에 영향을 미쳤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정철과 창평과의 관계

20041169

정다운



송강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은 정치가이자 문학인이며 26세 입관하여 58세 죽음에 이르는 대부분의 생애를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겪으며 수없이 중앙정계에서 밀려나게 된다.

낙향을 한 뒤 대부분을 담양에서 자신의 문학적 기질을 뽐내었는데 그가 기술한 대표적인 작품인 <성산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관동별곡> 등을 남기며 문학사를 빛냈다.

이러한 문학들은 정치세계에 떨어져 자연경관을 벗 삼아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문학의 배경에는 그가 거거한 담양의 아름다운 배경과 연관이 있다.

담양은 대나무의 고향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송강이 태어나고 자랐던 지실 마을은 무등산의 빼어난 경관과 자미탄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호수로 신선세계를 짐작하게 하는 경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그의 문학은 신선세계를 노래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정치의 꿈이 번번이 실패했을 때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기능도 했을 것이다.

지금의 담양은 죽전세공을 내세우며 고집스런 장인의 이미지를 대나무와 결합하여 “대쪽 같다.” 라는 주제로 지역의 특색과 관광명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정철의 작품은 비록 정치세계의 주류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군신간의 관계와 크기는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충고는 고고한 선비의 대쪽 같은 고집이지 음지에 묻혀 자신의 기술을 지키는 장인의 이미지와는 거리감이 있다.

경제성이 주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빈약한 문학의 도시는 점점 뒤쳐져 명목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송강정철문학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는 '송강문학관'이 있다. 송강 정철이 부모상을 당하여 시묘살이 했던 곳에는 '송강마을'과 '송강고개'란 지명도 전해온다. 그리고 충북진천군에는 1665년 세운 '신도비'와 1983년 세운 송강사(松江祠)와 유물기념관이 있다. 그러나 정작 송강 정철의 문학혼이 가장 빠져리게 녹아있는 남도 담양골에는 송강정 이외에는 별다른 '송강 이름'조차 없는 실정이다.

시대는 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기준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정신적인 여유와 문학 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성산별곡>의 이해

20111124

심문정

<성산별곡>서사 부분

어떤 지나가는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아 내 말 들어 보소
인생 세간에 좋은 일 많건마는
어떠한 강산을 갈수록 낮게 여겨
적막 산중에 들고 아니 나오시려고.
송근을 다시 썰고 중상에 자리 보아
잠깐 올라앉아 어떤 고 다시 보니
천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으로 집을 삼아
나고 드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가.
푸른 시내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러 있어
천손 운금을 잇는 듯 펼치는 듯 헌사도 헌사할사
산중에 책력 없어 사시를 모르더니
눈 아래 퍼진 경치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이라



▲식영정

이해와 감상

정철이 16세가 되던 해 그의 부친이 귀양에서 풀려난 후, 조부의 묘가 있는 전담 담양군 창평으로 왔다. 그는 이후 10년간 창평에서 살면서 성산 주변의 자연 풍경을 체험함으로써 시적 정서를 함양하였다. ‘성산별곡’은 정철의 처 외재당숙인 김성원이 서하당과 식영정을 지었을 때, 그곳의 풍물과 김성원에 대한 흠모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성산별곡>은 16세기 조선조 사대부들의 삶의 한 방식을 드러내 준 작품이다. 조선조의 사대부들은 사유의 토지를 생활 근거로 하여 나아가 조정의 관료로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물러나면 수신제가(修身齊家)에 더욱 힘쓰면서 강호의 처사로서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로운 삶을 누렸다. 바로 이러한 사대부들의 생활의 양면성이 그들로 하여금 관료적 문학과 서사적 문학의 세계를 넘나들게 하였다. 이렇게 토지에 기반을 둔 생활 근거가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현보나 송순, 윤선도 등의 강호 생활이 가능했다. 그리고 관료나 처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른바 귀거래(歸去來)의 강호 생활을 높이 평가하는 관념적 풍조 또한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이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리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보아 사대부들의 귀거래의 추구를 결코 그들의 본뜻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에 몰입한 듯, 현실에 대한 모든 미련을 떨치고 숨어 지내다가도, 때를 만나 기회만 오면 그 자연을 서슴지 않고 버리고 현실에 뛰어들곤 했다.

사미인곡의 이해

20111140

최소라

사미인곡은 1585년 8월 당파싸움으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고향인 창평에 은거하면서 임금을 사모하는 심경을 남편과 이별하고 사는 부인의 심사에 비겨 자신의 충정을 고백한 내용으로 아름다운 가사문학의 정취가 배어나는 글이다.

서사는 한평생의 연분으로 만난 임과 이별하고 나서의 그리움과 시름을 노래하였다. 본사는 춘하추동의 사계절에 따라 춘원, 하원, 추원, 동원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춘원에서는 자신의 충정을 임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시각과 후각, 기쁨과 슬픔이 조화롭게 뒤섞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하원에서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임에 대한 애틋한 정성을 나타내고 있고 미화법을 써서 정성의 극진함을 표현하고 있다. 추원에서는 달, 북극의 별, 점낮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임금의 선정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원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임에 대한 여성 취향적인 정성을, 후반부에서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표현하였



▲사미인곡의 시비와 송강정

다. 결사는 서사와 본사에서 점층적으로 고조되어 임을 향한 그리움과 시름 때문에 마침내 불치병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신을 버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 한 임에 대해서 원한을 품기보다 충성으로 죽어서도 임이 알거나 모르거나 임을 따르겠노라는 일편단심을 '범나비'가 되어 표현한다.

이 작품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정서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작가 자신의 심경을 조응하여 표현하는 기법은 가사 ‘규원가’ 등에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 고전 시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통적 전개 방법이다. 특히 봄, 가을에 비해 여름, 겨울의 사연이 상대적으로 긴 것은 화자가 홀로 지내는 외로운 시간이 봄과 가을에 비해 여름의 낮과 겨울의 밤이 길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외로운 시간과 비례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가 커져서 화자가 풀어내고 싶은 말도 많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끝의 낙구는 서사의 첫머리와 호응 관계를 이루면서 임을 따르려는 사랑의 일념이 숙명적이라는 것을 수미상관의 구성법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정철의 관련유적

20111130

이근재

●송강정

이 건물의 이름의 유래는 정철의 후손들이 정철을 기리기위해 이름을 송강정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정자의 앞면에는 송강정이라는 편액이 있고, 측면 처마 밑에는 죽록정이라는 편액이 보인다. 들레에는 노송과 참대가 무성하고 앞에는 평야가 있다. 정철은 이 곳에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다 하며, 정자 옆에는 그 시비가 세워져 있다.



▲ 송강정

●식영정

환벽당, 송강정과 함께 송강 정철 유적으로 불리는 식영정은 정철이 성상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즐기며 성산별곡을 지어낸 곳이다.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식영정은 16세기 중엽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이자 자신의 스승인 엄억령을 위해 지은 곳이다. 송강 정철, 엄억령, 김성원, 고경명을 일컬어 당대 사람들은 식영정 사선이라 불렀다. 또 정철, 고경명, 백관훈, 송익필 등과 어울리며 동운 28수를 지었으며 송강의 성산별곡도 이곳에서 지은 것이다.



▲ 식영정

●환벽당

환벽당은 김윤제가 창건한 건물로 이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한가로이 지내며 후진을 키웠다. 그러나 이곳은 송강 정철이 27세로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머물며 공부했던 곳으로 더 유명해져 위의 세 곳과 함께 정송강 유적으로 불린다.



▲ 환벽당

윤선도의 생애

20081132

이재혁

-윤선도는 선조20년 (1587년)에 태어나 광해군, 인조, 효종대를 거치고 현종 12년 (1671년)에 돌아가셨다. 이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유래 없는 변란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당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서인이 득세한 시기였다. 그의 집안은 대를 이어 벼슬을 한 명문이었고 재산도 유족했지만 남인의 집이었다. 이때문에 윤선도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다. 85세로 장수를 누렸으나 세 차례에 걸친 유배로 20년 남짓한 세월을 보냈고 그사이에 해남의 금쇄동과 보길도 부용동 등에서 19년간을 숨어서 살았다.

윤선도의 자는 약이(約而)이며 호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이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후사가 없던 해남윤씨 종가에 입양되어 해남으로 내려와 살았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아버지 이외에는 특별히 스승도 없었으나 경사백가(經史百家)를 두루 읽고 의학, 음양, 지리, 소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독서하여 교양을 쌓았다. 진사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 유생으로서 공부하던 30세(광해군8년 1616)때 윤선도, 이이첨, 박승중, 유희분 등은 당시 집권세력의 좌상을 격렬히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이것이 병진소임이다.) 그로부터 1년 뒤에는 경상남도 기장으로 이배되었고, 인조반정(1623)이 일어나 이이첨 일파가 처형되기까지 8년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유배가 풀린 후에 의금부도사로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해남으로 내려와 지냈다. 42세 되던 인조6년(1628년)에 별시문과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한 후 송시열과 함께 봉림대군, 인평대군의 사부로 임명되었고, 그후 예조정랑, 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으나 48세 되던 해에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성산 현감으로 좌천되었다가 이듬해에 파직, 해남으로 내려왔다. 이 무렵부터 그는 당쟁으로 번잡한 세상을 멀리하고 숨어살 뜻을 가졌다고 한다.

51세 되던 인조15년(1637년)에 왕이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하여 세상을 멀리하고자 제주도로 향하던 도중에 보길도를 발견, 그 빼어난 산수에 매혹되어 그곳에 자리 잡고 부용동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듬해에 난이 평정된 뒤에도 그동안 고초를 겪은 왕에게 문안드리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다시 경상북도 영덕으로 유배되었지만 1년 만에 풀렸다. 이후 10년 동안 윤선도는 보길도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해남의 금쇄동을 오가며 자연에 묻혀 지다. 1659년 효종이 죽자 평소 효종의 비호를 받던 윤선도의 입지는 아주 약해졌다. 윤선도와 송시열로 대표되는 서인세력은 효종의 능을 정하는 산릉문제와 조대비의 복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는데 결국 윤선도 쪽이 저서 삼수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때 윤선도의 나이는 73세였다. 이 귀양살이는 광양으로의 이배를 거쳐 8년후 81세가 되어서야 풀렸다. 다시 부용동으로 돌아가서 지내다가 낙서재에서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윤선도의 작품세계

20111102

고은하

해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사람인 고산 윤선도(1587-1671)는 우리나라 국문학상 시조시인의 일인자로 꼽힌다. 송강 정철이 가사문학의 대가라면 고산은 시조문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나라의 선비들이 대부분 한문문학과 경직된 사회구조의 틀속에 갇혀 있을 때 고산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섬세하고 미려한 시조들을 지어냈다.

고산 윤선도의 일생은 출사와 유배와 은둔생활로 이어졌고 이 세 가지 생활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특히 고산 윤선도에게 있어서는 출사의 기간보다는 유배와 은둔생활의 기간이 훨씬 길었고 이러한 생활환경이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했고, 드디어는 물(水), 바위(石), 소나무(松), 대나무(竹), 달(月)을 벗 삼아 살겠다고 노래하게 했던 것이다.

윤선도는 59세의 6년간 (인조18~인조23)을 주로 금쇄동에서 기거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산중신곡과 금쇄 동기를 지었는데 산중신곡은 산중생활에서 촉발된 감흥을 읊은 것이고, 금쇄동기는 금쇄동의 산수경관을 술회한 것이다. 고산이 산거생활에서 쓴 산중신곡은 고산연보(孤山年譜)에 의하면 임오 년(任午年)56세에 금쇄동에서 18장을 지었다고 하고있다.

산중신곡에 나오는 작품중 만흥 6수는 자연을 벗으로 삼고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읊은 것이고, 조무요 1수는 아침안개에 가려있는 월출산의 생태를 읊었고, 하우요 2수는 여름장마비가 계속되는 농가의 한가한 정경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일모요 1수는 석양의 산기(山氣)와 황혼의 물색(物色)을 노래했으며, 야심요 1수는 순박한 농촌의 풍습과 농촌생활의 한적한 밤의 안식을 노래 하였고, 기세탄은 흥년으로 굶주림을 받게되는 것을 탄식한 노래다. 또한 수 석 송죽 월(水 石 松 竹 月)을 노래한 오우가에서는 자연속에 깊이 몰입하여 자연의미를 발견하고 영원불변하는 자연과 자기의 생명이 주객일체가 되어 자연에 대한 오묘한 사랑과자연에 대한 합일을 이와 같은 노래로 승화하였다.

고산의 산중신곡은 고산이 자연에 귀의해서 지은 작품으로 그는 일상생활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평범한 소재들을 작품으로 빚어내었다. 여기서 묘사된 자연은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다. 따라서 자연은 고산으로 인해 그 미가 재발견된다. 산중신곡의 특색은 자연에의 귀환(歸還)과 인생의 유한(悠閑)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부사시사의 이해

20111106

김민정



- 어부사시사는 윤선도가 51세의 나이로 세연정에 출입하면서 읊은 연시조이며, 춘, 하, 추, 동 각 10수씩 모두 40수로 이루어져 있다. 장과 장 사이에 고려속요와 같은 여음을 사용하고 후렴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3장 6구의 시조형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를 그 음을 살려 한자로 표기한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는 전편이 일정하며, 자연에서 지내며 노니는 흥겨움과 생기가 저절로 느껴지게 한다. 그리고 대구, 반복, 의성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구사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춘하추동 해석>

봄 - 봄은 어부들이 고기잡이 배를 띄우고 강촌을 떠나가는 광경을 노래한 것이며 빠꾸기와 버들숲을 통해 평화로운 봄 경치를 드러낸다. 또한 뛰노는 물고기의 심상은 생동감을 보여주며 문장에 도치법을 사용하여 표현의 모를 더욱 더 살려놓았다.

여름 - 여름은 어부의 소박한 삶과 여유로운 모습이 나타나며 갈매기를 통해 갈매기와 화자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를 보여준다. 또한 서민들의 안분지족하는 삶의 모습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노래는 한자 어구와 중국고사가 남용되고 내용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작품이다.

가을 - 가을은 번거로운 속세를 벗어난 어부의 생활을 나타낸다. 속세와 떨어져 살고 싶은 마음을 가을 낚시의 흥겨움을 노래함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물아일체나 유유자적을 노래한 것이라 보는 것 보다는 ‘지사비추’의 심경을 노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겨울 - 어부사시사의 겨울은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눈이 갠 후의 바다와 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사계절에 걸쳐 언제나 변함없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노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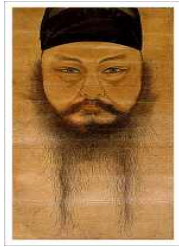
윤선도와 세연정의 유흥

20111135 이하늘

20111143 홍성대

세연정이란

-유배 후 윤선도는 보길도에 동천석실과 낙서재를 지은 후 세연정이란 정원을 지었다. 세연정의 세연이란 주변경관이 물에 씻은 듯이 깨끗하고 단정하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란 뜻으로 세연정은 정방형 3칸 정자로 사방에 문을 달아 개방된 구조이며 가운데 온돌방을 마련하여 편액을 칠암헌이라 하였다. 또 중앙엔 세연정, 남쪽으로는 낙기란, 서쪽으로는 동하각, 동쪽엔 호광루라 하였다.



고산 윤선도와 세연정

-세연정은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2번지 등에 위치하고 있는 보길도 윤선도유적지에 있다. 보길도는 윤선도가 이이첨 세력의 모함으로 유배 후 인조반정으로 이이첨 일파가 처형되고 인조의 신임을 얻어 주요 요직을 거친 후 노론파의 질시로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던 중 그 이듬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제주도로 향하던 중 그경치에 반하여 여생을 마칠 곳으로 삼아 지낸 곳이다. 그 보길도에 위치한 세연정은 고산 윤선도가 마음을 다스리던 장소로 예약을 실천한 곳이기도 하다. 윤선도는 예약이 항상 몸에서 떠나면 안된다 하였다. "말속에서는 음악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고, 단지 기쁨을 돕는 것인 줄만 알고 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번거로운 소리만 즐겨 찾으며, 평화롭고 장엄하며 너그럽고 치밀하여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비루한 사람들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병통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 "노래와 춤은 시와 서로 같은 것이며, 그것은 모두 마음을 닦고 시정을 더욱 깊게 드러내려는 수단이었던 것으로 하루도 즐겁게 놀지 않으면 심성은 수양하여 세상걱정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윤선도는 51세부터 세연정에 출입을 하면서 13년간 글과 정서를 공부하였으며 국문학 시가의 대표라하는 작품인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한시가 등을 세연정에서 창작하며 술과 시로 일생을 보내었던 곳이다.

출처 - 정운채 저 [윤선도] 건국대학교 출판부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블로그 [개미실사랑방], 웹사이트 [보길도]

오우가의 이해

20111110

김영준



-오우가(五友歌)는 1642년(인조20)에 고산 윤선도가 56세의 나이로 전라남도 해남의 금쇄동(金鎖洞)에 은거하면서 자연을 벗 삼아 지은 연시조 6수이다. 서사(序詞)에 해당하는 첫 수와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에 대한 오우(五友)를 찬양한 작품으로 각 1수씩으로 되어 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시조를 높은 경지로 끌어 올린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작자는 ‘다섯 친구’로 거명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라는 자연물에서 ‘항상성, 의연함, 강직성’ 등의 유교적 덕목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찬하고 있다. 고산유고(孤山遺稿) 6권에 수록되어 있다.

<현대어 해석>

나의 벗이 몇인가 헤아려 보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니 그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다.
나머지는 그냥 두어라. 이 다섯 외에 더 있으면 무얼하겠는가?

구름의 빗줄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자주 검어지네.
바람 소리가 맑다지만, 그칠 때가 많도다.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까닭에 피자마자 쉬이 저 버리고,
풀은 또 어찌하여 푸른 듯하다가 이내 누른 빛을 띠는가?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추워지면 잎이 떨어지는데,
소나무야, 너는 어찌하여 눈서리를 모르고 살아가는가?

깊은 땅 속(혹은 저승)까지 뿌리가 곧게 뻗은 것을 그것으로 하여 알겠노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게 자라기는 누가 시켰으며,
또 속은 어찌하여 비어 있는가?
저렇고도사철 늘 푸르니, 나는 그것을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바추니
한밤중에 광명이 너보다 더한 것이 또 있겠느냐?(없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벗인가 하노라

[서사]

'오우가(五友歌)'의 서시로서, 초, 중장은 문답식으로 다섯 벗을 나열하였다. 자연과 벗이 된 청초하고 순결한 자연관을 고유어의 조탁으로 잘 표현하였다 '또 더?態? 머엇?糖?'에서 작자의 동양적 체관(諦觀)을 발견할 수 있다.

[水]

'오우가(五友歌)' 중 물의 영원성을 기린 노래이다. 구름과 바람은 가변적(可變的)이요 순간적(瞬間的)이라 한다면, 물은 영구적(永久的)이다. 물은 구름이나 바람과 달리 깨끗하고 항상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산이 좋아하는 자연이 되고 있다.

[石]

'오우가(五友歌)' 중 바위의 변하지 않는 생명성을 찬양한 노래이다. 꽃이나 풀이 가변적이고 세속적이라 한다면, 바위는 영구적이요 철학적이다. 꽃이나 풀이 부귀 영화의 상징이라면, 바위는 초연(超然)하고 달관한 군자의 모습이다.

[松]

'오우가(五友歌)' 중 소나무의 변함없는 푸름에서 깨끗한 절개를 느껴 찬양한 노래이다. 소나무는 역경에서도 불변하는 충신 열사(烈士)의 상징으로 여긴다. 여기에서도 절의의 상으로서의 소나무를 칭송하면서, 자신의 강직한 고절(高節)을 나타내었다.

[竹]

'오우가(五友歌)' 중 대나무의 푸름을 찬양하여, 아울러 그가 상징하는 절개를 나타낸 것이다. 대나무는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 옛 선비들의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사랑을 받아온 것이다.

[月]

'오우가(五友歌)' 중 달(月)을 노래한 것인데, 달이란 작은 존재로 장공(長空)에 홀로 떠서 세상만 비출 뿐 인간의 미, 추, 선, 악을 꼬집지도 헐뜯지도 않아 좋다고 했다. 이는 병자호란 때 왕을 호종(扈從)치 않았다고 해서 반대파들로부터 논척을 받고 영덕에 유배되기까지 한 고산(孤山)으로서는 말없이 장공에 떠서 보고도 말 아니하고 오직 세상만 골고루 비춰 주는 달만이 벗이라고 할 만하다.

‘애절양’의 이해

20111108

김승만

애절양(哀絶陽)

蘆田少婦哭聲長 노전마을 젊은 아낙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哭向懸門呼穹蒼 현문을 향해 슬피 울며 하늘에 호소하네
夫征不復尙可有 전장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自古未聞男絶陽 남자가 그 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舅喪已縞兒未澡 시아비 상복 막 벗고, 아기는 탕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三代名簽在軍保 삼대가 다 군보에 실리다니
薄言往愬虎守闥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里正咆哮牛去阜 이정은 으르렁대며 마구간 소 몰아가고
朝家共賀昇平樂 조정에선 모두 태평의 즐거움을 하례하는데
誰遣危言出布衣 누구를 보내 위태로운 말로 포의로 내쫓는가
磨刀入房血滿席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自恨生兒遭窘厄 자식 낳아 군액 당한 것 한스러워 그랬다네
蠶室淫刑豈有辜 무슨 죄가 있어서 잠실음형 당했던가
閩田去勢良亦憾 민땅 자식들 거세한 것 그도 역시 슬픈 일인데
生生之理天所予 자식 낳고 사는 이치 하늘이 준 바이고
乾道成男坤道女 하늘 닮아 아들 되고 땅 닮아 딸이 되지
驅馬殯豕猶云悲 불칸 말 불칸 돼지 그도 서럽다 할 것인데
況乃生民恩繼序 대 이어갈 생민들이야 말을 더해 뿔하리요
豪家終歲奏管弦 부호들은 일 년 내내 풍류나 즐기면서
粒米寸帛無所捐 난알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는데
均吾赤子何厚薄 똑같은 백성 두고 왜 그리도 차별일까
客窓重誦鴈鳩篇 객창에서 거듭거듭 시구편을 외워보네

‘애절양’은 哀(슬플 애), 絶陽(생식기를 자름). 즉, ‘생식기를 자른 슬픔’이란 뜻인데 한 농민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아이가 군적¹⁾에 오르고 이정이 소를 빼앗아 가니 "내가 이것 때문에 곤액을 당했다."라며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자 그의 아내가 생식기를 관가에 가져가 울며 하소연했으나 문지기가 막아버렸다는 사연을 듣고 정약용이 지은 시이다.

‘애절양’은 정약용이 유배 중 직접 견문한 사실을 시로 쓴 것인데, 시를 통해서 갓 태어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군적을 부과하거나 이미 죽은 사람에게 군적을 부과하는 군정의 폐해를 비판, 고발 하고 있으며 그로 더욱더 살기 힘들어지는 백성의 아픔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달프기만한 백성들의 삶과는 다르게 풍류를 즐기는 부호들과 태평을 노래하는 조정을 표현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를 고발하고 ‘똑같은 백성 두고 왜 그리 차별일까’라는 구절에서는 양반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불공평한 신분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1) (軍籍) : 군인을 징발하기 위해 해당자의 신상을 기록한 장적(帳籍).

정약용의 자주적 문학관

20111113

김주형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한 이조 후기의 학자였다. 그는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답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문학, 철학, 의학, 교육학, 군사학,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500여권에 달하는 이 저술들은 깊고도 넓은 학문세계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우리의 고전이 되고 있다. 다산의 저작들이 이토록 오늘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의 사고가 당시의 민족현실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직접적인 물체와의 접촉, 실제적인 표현과 묘사, 구체적인 행동, 정확한 시어의 사용, 형식보다 내용강조를 통해서 실현된 문학만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문학관을 통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은 보다 세밀하게 그의 작품 속에 녹여냈고, 조선말기의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의 문제를 비판 하였다.

정약용은 양반의 신분으로 백성들의 뼈저린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양반들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노력했다.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그가 백성들의 틈 속에서 그

<영정 사진>



<목민심서>

들과 같이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부패척결에 힘쓰고 도서 집필에 힘쓰며 성인군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현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민을 돌보고 가진 자들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정약용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약용이 더 주목받아야 하고 그의 문학작품들이 재조명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전론』의 이해

20101112 김지예

20111129 윤지영

『전론』의 이해

전론이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이다. 1799년에 그의 토지개혁론 가운데 가장 먼저 고안되었다. 전론의 여전제는 자연적인 지형, 즉 산곡(山谷)과 천원(川源) 등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확정하여 경계로 삼고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된 지역을 1여(閭)로 하고, 1여 여섯을 합쳐서 이(里), 이 다섯을 합쳐서 방(坊), 방 다섯을 합쳐서 읍(邑)이라 한다. 여에는 여장(閭長)이라는 지도자를 두어 이의 지휘를 받고, 1여의 토지는 당해 여의 여민(閭民)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자치적인 공동농장으로 경작한다. 여민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인 여장(閭長)의 지휘를 받아 이 토지를 공동경작하고, 여장은 농경에 종사한 개개인의 노동량을 기록하였다가, 가을이 되면 수확물을 일한 날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데, 이때 국가에 바치는 세(稅)와 여장의 봉급을 먼저 제하고 그 나머지를 여민에게 분배한다. 또,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경계선을 없애고, 모든 일을 여장의 명령에 따르게 한다.

정약용은 여전론을 10여년 정도 시행하면 토지의 면적과 노동량 및 소출에 따른 백성들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농사를 하지 않는 자는 전지를 얻지 못하고, 따라서 곡식을 얻지 못한다며 선비 또한 농사꾼으로 변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여전론을 시행하면 여장의 명령에 따라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은 저절로 몸에 군율이 배게 되어 병제 또한 쉽게 완성됨을 주장한다. 또한 병역에 응하는 군정의 수로써 호포를 세면 군정에 충당하는 사회적 비리 및 폐단역시 없어질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공동농장제인 여전론은 시행할 수 없는 이상적 토지개혁론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여전론>의 효과

이러한 여전제는 단순한 전제개혁론이라기보다 다분히 공상적·농민적 사회주의사상을 내포하는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정약용의 개혁사상의 총체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여전론>의 특징



- 여전론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원칙으로 한다.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한다. 즉, 농민의 토지 소유를 추구한 것이다.)

- 여전론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한 마을 단위로 한 토지의 공동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대토지의 소유로 인한 빈부격차 재현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 주장은 여전론이 중국 주나라 시대의 정전법(井田法)에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 여전론은 공동 경작과 노동량에 따른 분배를 주장한다.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를 주장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정약용의 저서

20111121

박선아

정약용의 저서들은 《정다산전서》라는 책으로 묶여져 있다. 원래 《정다산전서》는 《여유당전서》라는 원제가 있지만, 외 후손 김성진과 정인보, 안재홍의 교정을 거쳐 ‘정다산전서’로 새로이 엮이게 되었다. 《정다산전서》에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마과회통》, 《상서고훈》, 《악서고존》 등이 있다. 이 중 3가지만 간단히 설명해보겠다.

1) 《목민심서(牧民心書)》 - 필사본 48권 16책

정약용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갔을 때 저술한 책으로 유배가 끝나던 해인 1818년에 완성되었다. 이 책은 정약용 자신이 어렸을 때 지방관인 아버지를 통해 암행어사가 되어 고을들을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내용은 지방관 즉, 목민관의 청렴과 정직성 애용정치 등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경세유표(經世遺表)》 - 필사본 44권 15책

《경세유표》역시 《목민심서》처럼 전남 강진에 유배중일 당시에 저술한 책이다. 원제는 ‘방례초본’으로 경세론을 펼친 책들 가운데 첫 번째 작품으로 일종의 개혁안이다. 이 책은 한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정치 경제 사상이 뒤섞여 있어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저술되어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과 공전의 비율을 9대 1로하여 세금을 10분의 1만 떼어내게 하는 정전제와 정전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전의가 있으며 또, 농민과 토지에만 국가의 부세가 편중되는 것을 비판하고 모든 사업에 세금을 부과 해야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3) 《흙흙신서(欽欽新書)》 - 30권 10책

1822년에 저술된 것으로 보아 전남 강진에서의 유배가 끝난 다음에 저술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형옥들이 무지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가버히 여기며 형법상 처벌에 관한 일들에 대해 무성의함을 보고 정약용이 중국의 《대명률》과 조선의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하여 형법에 관해 저술한 책이다.

몇 개의 책으로만 알 수 있듯이 정약용은 정치, 경제 등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두루 관심을 가지며 개혁방안을 세웠다.

◆참고문헌

박무영,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 태학사, 2002.

고승제, 『다산을 찾아서』 중앙M&B, 1995

김영랑의 생애

20111139

최성윤

본명은 김윤식. 1903년 1월 16일, 전라남도 강진읍 남성리에서 출생하였다. 대지주의 장남으로서 태어난 영랑은 엄한 성정을 지녔다고 알려졌다.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나온 후 13세에 첫 혼례를 하고 14세 되던 해 상경해 서울 기독교청년 회관(YMCA)에서 영어를 배운 후 휘문의숙에 입학한다. 휘문의숙에 재학하며 홍사용, 정지용, 이태준 등, 당대의 유명한 명사들과 함께 수학하였다.

1919년 3.1절에 거사를 모사하다, 발각되어 6개월간 대구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다. 김영랑이 본격적으로 문학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된 1920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학원 중학부에 입학하여, 1922년에는 영문과로 진학한다. 이 와중에 시인 박용아와 교류를 나누고, 청년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 박열을 통해 사회주의를 접합했다. 1923년에는 독문과에 입학하나, 관동 대지진으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23세가 되어 두 번째 혼례를 올린 영랑은 박용철을 만나 시 전문지를 내기로 한다. 박용철은 오랜 숙의 끝에 사재를 털어 [시문학] 창간호를 1930년에 발간하였다. 이때는 가히 김영랑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시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당시 김영랑의 시는 문단에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1920년대 중반 이후 카프를 중심으로 쓰인 경향시는 생경한 사상성과 경직된 목적의식을 주로 드러냈기 때문에 당시의 시단은 서정시의 본령을 보여 주는 김영랑의 시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그에 힘입어 1935년 박용철의 힘으로 [영랑시집]이 발간된다. 이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최남선, 이광수, 노천명, 서정주 등이 일제에 꺾여나갈 때 김영랑은 우익청년운동에 가담하기도 하였고, 1949년에는 한때 공보처 출판국장의 관리직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는 지하 생활을 하다가 서울이 수복된 9월 28일 포탄의 파편에 상처를 입고 이튿날 운명하였다.

김영랑의 문학관

20111134 이은화

20111103 김창인

김영랑은 경향시 위주였던 당시 문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향시는 익숙하지 않은 사상성과 경직된 목적의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서정시의 본령인 김영랑의 시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고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김영랑은 남도의 이미지와 언어로 마음의 상태를 낮은 목소리로 노래했다. 고향의 이미지와 소재를 수용하며 카프와 모더니즘에 휩쓸리지 않고 순수한 문학세계를 구축했다. 고향 주변의 자연환경이 그의 시의 정조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아름답고 고요한 고향의 풍경이 그에게 일제라는 가혹한 현실을 잊게 해주었다. 그는 당대의 현실보다는 흠어져 가는 것에 대한 슬픔과 시간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운명에 집착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민족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김영랑의 시에는 ‘내 마음’이라는 어휘가 특히 많이 보인다. 그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한 것은 내면의 순결성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했다. 그의 초기 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자연의 정경은 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결한 마음은 자연의 미묘한 변화와 대응되므로 분명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1935년 시문학사에서 간행된 『영랑시집』 초판 수록시편들에는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인생태도에 있어서 회의를 찾아볼 수 있다. ‘슬픔’이나 ‘눈물’의 용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 비애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1940년을 전후하여 발표된 작품들은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죽음에 대한 의식이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광복 후에 발표된 후기 시에서는 일제치하의 제한된 공간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새나라 건설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강한 의욕이 보인다. 같은 시문학 동인인 정지용의 감각적 기교와 함께 당대 순수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이해

20111132

이소영

모란이 피기까지는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김영랑의 대표적인 순수시이다. 김영랑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통해서 감각적인 섬세함과 서정적인 감수성을 겸비한 이상주의를 잘 표현 하였다. 이 시에는 김영랑의 순수미의 결정체인 모란이 등장한다. 모란을 기다리는 마음과 모란이 지고 나서의 설움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모란이 피는 날은 김영랑이 바라고 있는 이상향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그 봄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나, 모란이 지고 말면 작가의 이상향과 보람은 무너지고 엄청난 상실감이 닥쳐온다. 그리하여 작가는 삼백예순날 동안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이다. 작가는 특히 모란의 낙화과정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그렸다. ‘떨어져 누운 꽃잎’의 시늉과 사라져 가는 모란을 자세히 표현했다. 이 과정은 모란이 피는 날이 흔치 않는 것의 강조를 위함이다. 즉 우리 모두가 바라는 봄날은 온갖 서러움을 안고 다시 태어나는 귀한 날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봄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그 봄은 식민지 치하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좌절감과 슬픔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독립이 실현되는 날일 것이다. 마지막 행에서 김영랑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에서 볼 수 있듯이 상실감의 슬픔을 잠시 뒤로하고 그가 꿈꾸는 이상향을 모순된 표현을 써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표현하였다.

조정래의 생애

20111141

최유리

조정래(趙廷來, 1943.8.17~)는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전라남도 승주군의 선암사에서 태어났으며, 광주 서중학교와 서울 보성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어린 시절을 주로 순천과 별교에서 지내면서 여수·순천사건과 6·25전쟁을 겪게 되는데, 이 경험은 훗날 중요한 문학적 토양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의 초기소설은 작가의 체험을 배제하고 사회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토속적인 공간을 재구성하여 그려낸 <청산댁>, 현실의 비리와 삶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폭력교사>, <비탈진 음지>, <천동설 시대>, <이방지대> 등이 있다.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주제로 하여 <한, 그 그들의 자리>, 1981년 현대문학상 소설 부문상을 수상한 <유형의 땅>, <인간의 계단>, <박토의 혼> 등을 발표하였다.



조정래는 분단문제를 비롯해서 시대적 모순의 형상화를 자주 표현했다. 대표작으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역사소설이 있다. 1983년부터 쓰여진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분단문학의 최고봉’으로 불려오고 민족사회의 내부사회 모순을 철저히 규탄하는 입장을 내세워 분단극복의 의미를 적극화하였다. 90년대에는 일제강점기 거래의 수난과 싸움을 표현한 또 하나의 대하소설인 <아리랑>을 내보였다.

조정래의 ‘한국현대사 3부작’의 시작인 <태백산맥>이 우리 민족의 이념적 갈등과 분열, 대립을 이야기 하고 있고 <한강>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현실과 그 속에서의 강한 삶의 의지와 민족적 삶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리랑>은 우리 민족사의 고통과 극복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34600>

조정래의 소설세계 - <아리랑>과 <한강>

20111115 김현정

20111118 맹승범

<아리랑>은 일제 침략기부터 해방기까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민사를 다룬 민족의 대서사시다. 제1부 <아, 한반도>, 제2부 <민족혼>, 제3부 <어둠의 산하>, 제4부 <동트는 광야>로 총 4부작으로 구성되었다. <아리랑>은 군산과 김제를 포함하여 지구를 세 바퀴 반이나 도는 수많은 취재여행과 자료조사를 거치며 ‘발로 찍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만주·중앙아시아·하와이에 이르는 민족이동의 길고긴 발자취를 따라가며, 일제강점기 소작농과 머슴, 아나키스트 지식인의 처절한 삶과 투쟁을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아리랑>은 흔히 말하는 역사소설의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리랑>에는 과거 역사로부터 이념이나 정신을 빌려 현재나 미래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이념형 역사소설의 요소도 있다. <아리랑>에는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를 탄압의 힘에 못지않은 반작용으로서의 저항의 역사로 보는 관점과 우리 민족의 끈질긴 투쟁정신을 재조명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아리랑>은 민족주의의 새 교과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한강>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겨레신문》에 연재한 후 2002년 10권으로 완간한 대하 장편소설이다. <한강>은 <태백산맥>, <아리랑>에 이어 3번째로 나온 대하 장편 소설로 1960년 4·19혁명부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어나기 까지 일어난 폭력적인 정치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회적 비리와 이에 대응하게 되는 민중의 성장을 담아내고 있다. 이 세 개의 작품을 작가는 ‘한국현대사 3부작’이라 하였고 <한강>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전적으로 맞선 작품들의 마침표를 찍은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요공간은 서울로, 중심인물로는 유일민, 유일표 형제가 나오는데 이 두 형제를 중심으로 당시 시대적 혼란상황과 여러 사건을 힘없는 서민들의 시점으로 보여주면서 그 당시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강>은 격정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민족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통일시대라는 민족의 미래를 무게감 있게 제시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작가의 문학정신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604&docId=2547>

<http://100.naver.com/100.nhn?docid=770323>

디지털김제문화대전

http://gimje.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2601757

<태백산맥>의 이해

20111116 김홍인

20111136 장성은

1945년부터 1953년까지 ‘해방 8년사’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주적 통일국가의 수립, 친일 민족 반역자 처단과 일제 잔재 청산, 토지개혁을 통한 식민지 사회 경제구조의 변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 작가는 그 과제가 왜 실현되지 않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시기의 사회적 상황을 소설로 그리면서 분단의 원인과 그 극복의 가능성을 알고자 하였던 것이다.



주 내용전개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면’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 만주, 서울, 부산 등지로 배경이 뻗어나가지만 중심공간에는 항상 ‘벌교면’이 있고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더욱 몰입감과 현장감을 준다. 또한 남북분단 이후 금기시되었던 좌익이나 ‘빨치산’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는 것, 민족의 분단을 국가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세의 간섭으로만 설명하려는 단계를 넘어서서 농민의 문제인 토지소유의 불균형과 경제적 불균등, 일제잔재의 미청산 등이 남북분단과 6·25전쟁의 원인이나 배경이 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태백산맥>을 보면 ‘태백산맥’이란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지진 않는다. 굳이 산을 찾는다면 ‘지리산’이 더 중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소설적 주요배경은 지리산일대지만 작가는 단지 지리산 일대에서 생긴 일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최장 산맥인 태백산맥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긴 비극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그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작가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대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 당시의 일들을 소설화 한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태백산맥>의 중심무대는 ‘벌교’이다. 그리고 <태백산맥>의 이야기는 오직 ‘벌교’라는 지역만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벌교는 근대적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서 구시대적 잔재와 근대적인 합리성을 겸비한 특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벌교는 일제가 한반도의 농산물을 수탈하기 위해 개발한 지역이라는 것,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 간척지가 생기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돈을 쫓아 사람들이 모여든 신흥 도시였다는 것, 그래서 전통적 규범보다는 자유분방한 행동이 용납되는 곳이기도 하였다는 것, 지주들이 돈 되는 일에 투자하여 잇속을 챙기는 데 능숙했다는 것, 농민들도 개화하여 귀와 눈이 밝고 입이 야무졌다는 것, 읍내 일본인들과 무난하게 잘 어울려 살았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위 내용은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처럼 근대성을 ‘벌교’는 근대성을 일찌감치 경험하여 전통과 신문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수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중심문제들이 논의 될 수 있었다.

*출처

조정래 닷컴

<http://www.jojungrae.com/index.htm>

임권모, 「1980년대 한국소설의 민중적 상상력 -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국언어 문학회, 2010

관련 유적

20061128

윤옥철



1. 현부자네집

일제강점기에 지은 건물이며 박 씨 문중의 소유이다. 한옥을 기본 틀로 삼고 곳곳에 일본식을 가미한 색다른 양식의 가옥으로, 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흥미로운 건축물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는 소설 첫 장면에 나오는 현부자네 집으로 묘사되었는데, 조직의 밀명을 받은 정하섭이 활동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끼무당 소화의 집을 찾아가고,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하게 되면서 현부자와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펼쳐진다.



2. 구 보성여관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읍 별교리에 있는 옛 숙박 시설이다. 2004년 12월 31일 등록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라종모 소유이다. 일제강점기에 전형적인 일본 주택 구조 형식으로 지은 1층의 목조 건물이다. 당시 숙박 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남도여관으로 등장하였으며 현재는 상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읍 별교리 640-2번지에 있다.



3.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1993년부터 <태백산맥>의 주요 무대인 별교에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작품이 이념 분쟁에 휘말려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다.

2개 층의 전시실에는 총 142건, 621점이 전시되어 있다. 1층에는 <태백산맥> 전 10권의 육필 원고 1만 6500장을 비롯하여 작가의 취재수첩과 카메라, 작가가 직접 그린 별교 읍내와 지리산 일대의 약도 등 작품의 탄생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아리랑>과 <한강> 등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비롯하여 작가의 아들과 며느리가 <태백산맥>

을 필사한 원고 등이 전시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81561>

<http://100.naver.com/100.nhn?docid=830599>

김승옥의 생애

20111128

윤수지

김승옥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자 가족과 함께 순천에 정착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순천은 실질적인 고향인 것이다. 그는 순천 북초등학교를 다닐 당시, '새벗' 지에 동시를 발표하고 교지에 콩트 수필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였다. 또한 그는 그림의 소질을 보여 「파고다 영감」과 「학원만평」을 그렸다. 그리곤 김승옥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였다.

1962년 김승옥은 『한국일보』에 「생명연습」이 당선되어 신춘문예에 등단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현, 최하림 등과 함께 동인지 『산문시대』를 창간하게 되었다. 그는 이 동인지에 『건』, 『환상수첩』 등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초기작품은 아웃사이더에 대한 열정이 현실을 아우르는, 낭만주의적 색채가 돋보였다. 더불어 확고한 자아의식이 확립되어 작품 속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후기작품은 꿈과 환상을 잃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삶에 대한 환멸과 허무가 전반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것이 1964년에 발표된 「무진기행」과 1965년에 발표된 단편 「서울 1964년 겨울」이다. 이러한 이유는 1970년대를 넘어서부터 왜곡된 근대화의 모순과 맞물려 변모하는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무기력이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 1977년 「서울의 달빛 0장」을 발표 하여 제 1회 이상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시나리오 집필을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활동은 더 이상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80년에 장편 「먼지의 방」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주사태로 인한 집필의욕 상실의 이유로 15회만에 자진 중단을 했다. 그 이후 그는 1981년 기독교 입문 선언문을 발표한 뒤 소설창작을 중단하고 전도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참고문헌 &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7&docId=52078483&qb=6rmA7Iq57Ji17J2YIOyDneyVo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hk08loi5UCssbaBcyosss--142315&sid=TYb08hbqhk0AAGFjCHs

<무진기행>의 이해

20111114 김지연

20111120 박민철

1960년대에 시작된 산업화는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을 가져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출세주의, 도시 지향성, 그리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배금주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허무주의적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1960년대의 허무의식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 바로 이 <무진기행>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허무주의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60년대 산업화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여러 사회 병리적 현상들을 안개 자욱한 무진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고 있다.

<무진기행>은 '출세한 촌놈'의 금의환향인데, 이것은 미묘한 사회사적 의미를 띤다. 그것은 우리 역사의 근대화 또는 공업화가 지니는 이중성에 기인한다. 이 이중성이란 한편으론 외관의 고도성장을 의미하면서, 또 한편으론 '농촌→도시→외국자본주의'로의 부의 이동을 뜻한다. 이전에는 삶의 기반이었던 '촌'의 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자리에 자신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즉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기존의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상실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무진기행>에선 이러한 죄의식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단지 막연한 절망과 광기만 있을 뿐이다. 그 절망과 광기는 이미 실체가 없으며 그렇기에 더욱더 치열하다. 이 작품의 결론 부분이 다음과 같이 마감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 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이것은 과거의 치기 어린 삶을 부정하고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서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단순한 극복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내던져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안개 속을 벗어나려는 주인공의 의식과 안타까운 행동들은, 1960년대 우리들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여 뚜렷한 전망이 없음을 형상화한 것이며, 참된 자아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현대인의 전형적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문헌 &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clid=3&dirId=307&docId=52078483&qb=6rmA7Iq57Ji17J2YIOyDneyVo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hk08loi5UCssbaBcyosss--142315&sid=TYb08hbqhk0AAGFjCHs

순천대대포와 ‘무진기행’의 배경

20111107

김수연



그의 대표작 ‘무진기행’에서 ‘무진’은 안개 무(霧), 나루 진(津)자를 써, 작품 속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하는 ‘안개’를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지명이다. 무진은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이지만, 작가 김승옥은 그곳이 '전남 순천과 순천만에 연한 대대포 앞바다와 그 갯벌'이라고 말한다. 순천만의 대대포구는 갈대포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순천만에서 갈대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소설에서 무진은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시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조로움과 절망의 추억만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순천만의 짙은 안개는 이러한 무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천만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다는 용산전망대에 오르면 노을을 받아 황금물결로 넘실대는 갈대숲과 떼 지어 나는 철새들,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만든 장관을 만나 볼 수 있다.

순천만 내부에는 자연 생태공원이 있다. 입장을 하면 입구 왼쪽으로 생태자원의 보존, 생태학습을 위해 조성된 공간인 순천만 자연 생태관과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가 보인다. 쪽 들어가다 보면 생태체험선과 갈대 열차도 만나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출처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5,00410000,36

http://blog.naver.com/thailee_ohpy?Redirect=Log&logNo=20124012174

김동리의 생애

20111142

허윤석

역마, 무녀도, 까치 소리 등, 우리가 흔히 김동리라고 알고 있는 작가의 본명은 김시중이다. 그는 1913년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학적은 경주제일교회 부설학교를 거쳐 대구 계성중학에서 2년간 지낸 뒤, 1929년 서울 경신중학 4년에 중퇴하여 박목월 등과 사귀며 본격적인 문학도의 길에 들어섰다.

1933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김달진, 서정주 등의 <시인부락>의 사람들과 사귀며 시를 쓰기 시작했다. 같은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백로’가 입선된 후 차례로 ‘망월’, ‘고목’ 등을 발표했으나, 곧 시 창작을 중단하고 소설로 전향하였다. 1935년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화랑의 후예’가 당선되면서 이주홍, 조연현, 최인옥, 홍구범 등과 사귀었다. 이때의 상금으로 다솔사, 해인사 등을 다니며 쓴 소설인 ‘산화’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다시 당선되었다. 그후 ‘바위’, ‘무녀도’ 등의 단편소설을 발표했으나, 다솔사로 다시 들어가 광명학원이란 야학을 세우고 농촌계몽운동에 힘썼다. 그 후 1939년에는 ‘황토기’와 ‘찔레꽃’을, 이듬해인 1940년에는 ‘동구앞길’, ‘다음 항구’ 등을 계속 발표했다. 그러나 일제의 어용문학단체인 조선문인보국회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 광명학원이 강제 폐쇄되며 만주지방을 방랑했다.

1945년 경남 사천에서 8.15해방을 맞이한 뒤, 곧 서울로 올라와 민족주의 문학진영에 들어갔다. 특히 김동석, 김병규와의 순수문학논쟁을 통해 우익측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두드러졌다. ‘순수문학의 진의’, ‘문학과 자유의 옹호’, ‘순수문학과 제3세계관’ 등은 좌우문학진영과의 이론 대립이 치열했던 때에 발표된 평론이었다. 이 평론들은 이론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던 우익측의 민족문학론을 논리와 체계화시킨 글로 평가되었다.

그는 또한 박종화, 이하운, 김진섭 등이 중심으로 있던 중앙문예협회의 불투명함을 거부하고 서정주, 조연현, 곽종원,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등과 함께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결정했다. 정부수립 때까지 이 단체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윤희설’, ‘백민’, ‘달’, ‘역마’ 등을 발표했다.

1947년 <경향신문> 문화부장, 1948년 <민국일보>편집국장 등을 지냈고, 오랫동안 한국문학가협회 소설분과위원장, 예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문예지의 발행에도 힘써 1949년에 창간한 ‘문예’와 1968년에 창간한 ‘월간문학’의 주간을 지냈다. 1955년 아세아자유문학상, 1958년 대한민국예술위원장상, 1967년 3.1문화상, 1968년 국민훈장 동백장, 1970년 서울 특별시문화상을 받았다.

그리고 1995년 서울, 지병으로 끝내 숨을 거둔다.

참고문헌: 네이버 블로그 ‘언어영역을 잡아라!’ 「김동리 황토기」 작가소개 中 시사랑 시인백과사전 「김동리」
다음 블로그 ‘김도화의 시 사랑방’ 「김동리」

김동리의 작품세계

20111111

김재원

소설가이자 시인인 김동리의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을 형상화 하는 것이다.

김동리의 문학세계는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1기(1935~1945) 김동리의 작품들은 주로 토속적, 샤머니즘적, 동양적 신비의 세상에서 제제를 선택하였고, 인간 생명의 허무적인 운명과 신비함을 추구하였다. 이는 일제 치하라는 역사적 현실로 토속적 소재로 상징적 처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작품은 『무녀도』, 『황토기』가 있다.

2기(1945~1950) 때의 소설은 해방 이후 좌, 우익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한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영향으로 좌익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타나 있다. 즉, 그는 대표적인 우익계열의 소설가였다. 이때의 소설 중, 운명에 대한 반항을 보여주는 작품은 『역마』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그의 소설에는 지식인의 고뇌와 해방직후 상황을 주로 드러냈다.

3기(1950~1960) 김동리의 작품은 현실에 관하여 참여 의식이 강한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6.25를 계기로 역사의식과 현실 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대표소설로는 『귀환장정』이 있다.

4기(1960~) 김동리의 작품은 이전의 김동리의 작품과는 다르게 보다 근원적인 인간 근원의 문제를 다루었다. 즉, 예전의 그의 작품세계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근대 문명에 대한 차원 높은 비판의식을 형상화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등신불』, 『까치소리』가 있다.

제 1기부터 제 4기까지의 작품을 살펴 볼 때 당시 사회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기본적인 소설의 주제인 토속적인 신앙, 자신에 운명에 대한 반항은 그의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gpwls__1?Redirect=Log&logNo=40019881249

『역마』의 이해

20061123 안준호

20111109 김아영

20111117 노지영

『역마』는 화개장터라는 장소 속에서 일어나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기를 중심으로 운명에 대한 저항과 순응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배경으로 설정된 화개장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로 쌍계사, 하동, 구례와 같은 여러 길 이 만나는 길목의 중심지이다. 이곳은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문물이 만나고 흩어지는 공간이다. 화개장터의 공간적인 특성 역시 역마살의 운명을 가진 성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화개장터라는 공간 속에서 성기와 그의 어머니인 옥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옥화는 자신의 출생이 아버지가 떠돌이 남사당패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도 떠돌이 중과의 사이에서 성기를 출산한 연유로 성기가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연유로 옥화는 성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기의 역마살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성기를 절에 보낸다. 성기가 성장한 후에는 역마살로 인해 출가 할 것을 걱정하여, 책전을 하게 한다. 이렇듯 옥화는 아들 성기의 운명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러던 중 장돌뱅이 체장수와 그의 딸인 계연이 주막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옥화는 계연이로 하여금 성기의 마음을 붙잡고자 한다. 성기의 계연에 대한 무뚝뚝하지만 계속되는 관심은 사랑으로 그려진다. 그 사랑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지만 작품 속 운명은 그들을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이는 옥화가 계연의 머리를 빗어주던 중에 왼쪽 귓바퀴에서 사마귀를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옥화는 계연이가 그녀의 이복동생임을 직감하고 체장수는 자신의 아버지라 의심하게 된다. 이런 옥화는 처음에는 아들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계연을 이용하려 하지만 그 또한 그들의 운명 앞에선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을 암시한다.

체장수가 돌아와 자신의 딸을 데리고 떠난다. 이때 계연은 울면서 성기에게 잡아주길 바라지만 성기는 끝내 붙잡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여자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성기는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는 인물의 전형이다. 때문에 성기는 길을 떠나 엇판을 들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성기의 결심을 옥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나보낸다. 성기도 계연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대로 자신의 길을 찾아 간다.

세 갈래 길목 중 화개골로 난 길은 지금까지의 성기의 삶으로 운명을 거스르고 살았던 삶, 구례쪽으로 난 길은 계연이를 쫓아가는 것으로서, 이 역시 운명을 수용하지 않는 삶을 뜻한다. 하동쪽으로 난 길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성기는 육자배기를 흥얼거리며 하동쪽으로 난 길을 떠난다. 이것을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슬프지만 운명에 순응하는 성기의 아픈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박경리의 생애

20111119

민주은



박경리는 1926년 10월 28일 경남 충무 출생이다. 1945년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황해도 연안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1955년 단편 「계산」과 1956년 「흑흑백백」이 『현대문학』에 추천됨으로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957년에는 전쟁 후의 상처를 다룬 「불신시대」를 발표하여 제3회 현대문학 신인상을 받는 등 신인작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58년에는 「도표 없는 길」, 「암흑시대」와 장편 「연가」를 발표하였으며, 1959년에 장편 「표류도」를 발표하여 내성문학상을 수상했다.

1960년대 접어들어 장편 「김약국의 딸들」을 발표하면서 작품세계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자기 체험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점을 확보하였고, 제재와 기법면에서 다양한 변모를 보인다.

1969년 이후부터는 대하 장편소설 「토지」에 몰두하였다. 「토지」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치기까지 역사의 변화 속에서 한 양반 가문의 몰락과 그 전이과정을 그렸다. 25년에 걸쳐 완성된 「토지」는 한국 대하소설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1957년 현대문학 신인상, 1965년 한국여류문학상, 1972년 월탄문학상, 1991년 인촌상 등을 수상하였고, 1999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에서 주최한 20세기를 빛낸 예술인(문학)에 선정되었다.

주요 작품집으로 『표류도』(1959), 『김약국의 딸들』(1962), 『시장과 전장』(1964), 『파시』(1965), 『토지』(전16권 완간, 1994) 등이 있다. 제2회 한국여류문학상, 제7회 월탄문학상을 수상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B0%95%EA%B2%BD%EB%A6%AC>

『토지』의 이해

20111105 김도희

20111112 김주성

20111123 백영현

1) 제목

『토지』라는 제목을 보면 땅이나 대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의 터전이나 역사적 사건이 펼쳐지는 특정한 무대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목 『토지』는 단순한 땅으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터전 전체를 의미한다. 또, 토지는 향속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생명을 틔워내는 의미이다. 그리고 『토지』는 단순한 농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국토와 역사를 표현한 것이다

2) 표현

표현상 특징으로는 방언의 사용과 은어, 속어의 사용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설의 현장감과 사실감을 강조한다. 표현상의 다른 특징은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이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3) 배경

평사리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동학혁명에서 근대사까지 우리 한민족의 대서사시인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토지』제 1부의 주요한 배경이 되는 평사리는 예로부터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토지』의 내용도 그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토지』의 배경이 된 평사리는 뒤에는 섬진강이 앞으로는 지리산이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농촌마을이다. 그런 만큼 좁고 인물 관계는 자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설 『토지』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배경이 된 평사리는 작중의 배경으로든 실제로의 평사리로든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한 몸같이 잘 부합된다는 점에서 훌륭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내용

『토지』의 내용은 최 참판 家와 농촌 주민들이 강한 응집력으로 뭉어져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시작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는 사회의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최 참판 家와 농촌 주민들은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이는 이유, 그것은 사회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경제적 강제성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지주 - 소작인)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신분제도와 상관없이 상하위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급변하기 시작한다. 최 참판 家의 인물들이 죽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핏줄인 서희는 더 이상 경제적인 면에서 주민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어진다. 그 시대의 깰 수 없는 고정관념

인 남녀차별도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경제적인 힘을 발휘 할 수 없자 서회는 권력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운명적 공동체로서 생활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평사리에서의 종속적인 관계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농촌마을에서의 땅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은 절대 불변하지 않은 권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만큼 서회가 떠난 이후 새로 땅을 차지한 인물에게 다시 종속적인 관계가 이어진다. 하지만 예전의 최 참판 家와 같은 그런 관계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관습적 친분관계라는 시간이 없으면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산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평사리는 고립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제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뱃길과 육로를 총해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빌어 바깥 세계와 소통하고 싶다는 인간의 염원을 소설과 배경이 된 평사리에서 잘 느낄 수 있다. 『토지』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생명사상은 바로 이 존엄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토지』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비극성과 한의 세계는 이 시기의 비운인 근대화 과정에 상응한다. 역사적 비극의 운명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인물들은 근대의 세계 속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토지』의 최치수 일가의 몰락을 조선조의 몰락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서회의 부각 역시 역사적 저항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그것은 그녀와 결합하는 민중적 인물인 길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전형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며 그들의 비극은 자신들만의 애환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그들이 역사적 격류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에 대한 수동적 삶의 세계 속에서도 인물들의 삶의 양상은 근대로 나아가는 역동성을 보여 준다. 이 소설은 전형적 인물과 환경을 통해 역사의 총체성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역사에 수동적인’ 개인적인 삶의 양상 속에도 역사적 변화의 역동성이 투입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역사적 자각보다는 개인적 운명에 대처하는 데 급급한 가운데도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 그 ‘개인적’ 삶의 내면에 스며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많은 부분에서 운명론적 삶에 지배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그 한에 대처하는 끈질긴 과정을 통해 내면적으로 깨어가는 근대화의 역사를 보여 준다.

출처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3&dirId=307&docId=789801&qb=67CV6rK966asIO2Go0yngOydmCDsnbTt1b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hrvrsoi5TCsuCS5zZsss--409808&sid=hDnyTTwUf00AAF6fTu0AAAAAN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7&docId=62212176&qb=67CV6rK966asIOyeke2Si0yEuOqzh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